

9. 발해를 포섭하다

왕건이 송악궁성에 돌아오니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신덕이라는 발해장수가 군사 500명을 데리고 청새진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압록수를 건너오는 발해사람들은 모두 패강 북쪽 청천강류역에 정착시키기로 되어있었지만 왕건은 이들만은 송악으로 데려오도록 령을 내렸다. 발해의 실상을 직접 만나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왕건이 발해조정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싶어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두해전 발해왕 대인선이 왕건에게 두 왕실사이에 혼인을 맺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었다. 발해왕이 자기 딸을 왕건에게 부인으로 맞도록 청해왔었는데 그것은 고려와의 동맹을 실현하여 거란으로 하여금 발해침공을 저지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왕건은 이 제의를 심중하게 대하였었다.

발해가 하도 위급해지니 고려에 경황없이 손을 내민 것이었다. 고려와 발해가 왕실사이에 혼인을 맺음으로써 거란으로 하여금 고려를 봐서라도 침공을 멈추었으면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왕건에게 발해왕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건의했었다.

동족인 두 나라 왕실이 인척으로 련결되는 일은 자못 의의가 큰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도 발해와 고려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었다. 동족통합의 대의가 현실로 되는 큰걸음이었다.

왕건은 즉시 수락의 뜻을 알리였었다.

그런데 그후로 발해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그 일까지 다그칠 겨를이 없는 모양이었다.

왕건은 그사이에 924년 7월과 9월에 걸쳐 두차례나 거란에 사신을

과하여 발해를 유린하지 말것을 요구했었다.

고려의 요구에 거란은 일시 공격을 멈추고 자기들은 료동지역만 내여주면 더이상 발해와 싸울 생각이 없노라며 발해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려만은 탐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란은 한해가 지나자 다시금 발해를 공격해왔다. 지금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발해를 송두리채 삼키려고 작정을 하고 나선것이였다. 신의를 모르는 이런 놈들이 고려라고 약조를 지킬리 만무한것이였다.

왕건은 여차하면 발해에 출병할 결심을 이미 내리고있었다. 실은 후백제가 때때로 고려를 괴롭히지만 앓았어도 고려는 그사이에 발해를 지원했을수도 있었다. 고려에 있어서 후백제 견훤은 생각할수록 그지없이 미운 존재였다. …

왕건의 요구대로 신덕을 송악으로 데려오는 일은 금필이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금필은 닷새만에 청새진고을에 당도하였고 즉시 되돌아서 열흘만에 돌아왔다. 신덕이 심한 부상과 고열로 해서 제발로 걸을수 없는 데다 그의 부하들 역시 사정이 비슷하여 수레로 이동한탓에 오는 길은 더디어진것이였다.

발해장수 신덕은 금필과 비슷한 나이로 쇠고개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부대는 거란군에 밀려 발해수도로 되돌아갈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진평(명문)고개를 넘어 고려지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던것이다.

왕건은 그를 통하여 발해정세를 더 자세히 알수 있었다.

료동은 이미 거란에 완전히 장악되어있었다.

발해는 《고려후국》이 차지하고있던 료동 남동쪽은 물론 발해의 15주에 속한 안원부, 회원부, 장령부, 부여부 등 료동전체와 막힐부, 철리부, 동평부 등 송화강과 흑수류역까지 내주고있었다. 거란은 현재 발해의 수도인 상경룡천부를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에워싸며 조여들고있었다.

고려와 면한 서경압록부도 지금쯤 떨어졌을것이라고 하면서 고려왕

실과의 혼인문제는 알수 없다고 하였다.

발해는 지금 마지막 갈림길에서 힘겨운 싸움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금궐은 왕건에게 룡동출병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제기했다. 능산과 술희는 물론 최응과 최언위, 최지몽도 같은 생각이였다.

왕건은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남쪽은 얼마간 떼우는 한이 있더라도 발해를 지원하기로 락착이 되였다.

발해출병준비로 송악과 서경이 끊어번졌다.

인원과 무기, 군량을 갖추는 한편 선발대를 급히 무어 떠나보내 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후 발해조정에서 고려왕실과 혼인을 맺을 발 해공주가 송악을 향해 떠났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두해전의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고있는것이였다.

나라사이의 대사니만큼 여기에 또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했다.

이런 국혼은 고려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였기때문이였다.

금궐은 왕명을 받고 동북방 국경으로 떠나갔다.

발해공주가 두만강을 넘어오므로 그리로 마중을 가는것이였다. 그 동안의 동북방실정을 다시금 룡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겸해 서 임무가 내려졌다.

금궐은 천여리 먼 북행길에 또다시 올랐으며 왕건으로부터 받은 전 권을 행사하였다.

끌암진 북쪽의 고을들과 성들, 촌락들이 일일이 장악되고 고려의 지배체계가 새롭게 세워졌다.

발해는 이미 두만강 남쪽의 평유권은 포기하고있었다. 동족인 고려 의 관할하에 들어가는것만으로도 안심하고있는것이였다.

발해는 당장은 수도방위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얻어 흑수하류쪽으로 일시 물러섰다가 위기를 넘긴 뒤 다시금 일어서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발해왕 대인선도 고려가 현재 저들을 도울 겨를이 없다는것쯤은

알고있었다. 고려가 신라를 쥐기 위한 후백제와의 주도권겨루기에만
도 적지 않은 힘을 들여야 했기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시일만에 해결
될 일이 아니었던것이다. 후백제와 장기전을 하는 속에서 고려가 발
해를 군사적으로 돕는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기때
문이었다.

하지만 왕건은 무너지는 발해를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제 발해공
주와의 혼인을 맺는 대사를 치르고서는 빨리 원정을 단행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리였었다.

금필은 이곳 동북방지역에 귀화하여 살고있는 녀진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료해했다. 적지 않은 녀진족들이 고려땅에 정착하였으며 이들
의 생활방식도 어지간히 현지에 적응되어가고있었다. 고구려와 발해,
그뒤를 이어 고려의 보호속에 년년이 생계를 이어오는 과정에 이들
은 단군이래 개화만발하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적지 않게 받
아들이었던것이다.

이들은 고려인들의 온돌식살림집을 특별히 좋아했다. 고려땅에 정
착한 녀진인들은 말할것도 없고 발해땅으로 되돌아간 녀진인들도 점
차 온돌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새초나 짐승가죽으로 지붕과 벽을
둘렀을망정 부엌을 겸하는 통방의 한쪽면에는 어김없이 온돌을 만들
어놓았었다. 이들의 조상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
였다.

금필은 녀진족장들도 여러명 만나 고무해주었다. 이곳 녀진인들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고려장수 유금필만은 신뢰했다.

후에 이곳 녀진인들은 후백제와의 최후결전때 금필의 호소에 응하
여 9 500여명의 기마군응원대를 무어 출정하기까지 하였었다.

발해공주일행의 도착이 늦어지고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영접은 왕건
에게서 직접 받은 명령이었기에 금필은 언제까지든 기다리지 않을수
가 없게 되었다.

두만강까지 올라간 금필은 그곳에서 설을 맞았다.

왕건과 발해공주와의 혼례는 다음해인 926년 봄에 가서야 치르어

졌으며 고려의 발해원정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926년 4월에 후백제의 볼모로 송악에 와있던 견훤의 조카인 진호가 급사하였기때문이었다.

진호의 죽음은 력사에 남긴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후백제의 몰락에 의한것인것만은 틀림없었지만 증거를 쥐지 못하였다.

고려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있을수도 없는것이여서 즉시 완산주에 통고하였다.

기다렸다는듯이 후백제가 반응했다. 고려가 의도적으로 진호를 죽였다고 단정하면서 견훤은 왕건의 4촌동생 왕신을 죽여버렸다. 그 다음 고려의 령토인 웅진(공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조물성싸움끝에 약조하였던 화친과 정전을 깨버린것이였다.

고려는 또다시 후백제와의 전면전에 말려들면서 부득불 발해원정을 포기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두만강에서 돌아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벌어진 이 정황앞에서 금궐은 땅을 쳤으나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금궐은 그달음으로 웅진으로 내려가 한발 먼저 내려온 왕건과 함께 싸움에 몸을 잠그었다.

웅진성을 방위하기 위한 싸움은 처절했다.

한해동안 힘을 키운 후백제는 기세를 올리며 공격을 거듭해왔다.

이번 기회에 형세를 되돌려보려는 잡도리가 분명하였다.

후백제의 기세찬 공격은 4촌동생을 잃은 통분함을 안고있는 왕건의 분노를 더욱 키질해주었다.

왕건은 웅진성전투에 고려의 모든 력량을 다 들이밀 작정을 하고 있었다.

금궐은 불안을 금치 못하였다. 이제 견훤이 또 다른 곳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대비할 력량이 모자랐던것이다.

아닐세라 견훤은 웅진성공격을 멈추지 않은채 신라에로 또 한차례 공격을 개시했다. 고려의 발목을 붙잡아놓고 신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심이였다.

그런데도 왕건은 견훤이 눈앞에 있는것만 생각하면서 웅진성전투

에만 정신을 쏟고있었다. 어떻게든 견훤을 잡아 버릇을 가르치겠다는 자세였다.

금필은 후백제가 신라를 마음대로 유린하는것을 보고만 있는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궁예때에도 후백제가 신라를 다치는 눈치만 보어도 왕건이 참지 못하고 제재를 가하곤 하여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의 왕건은 리성을 잃고있었던것이다.

바로 이때 송악에서 발해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왔다.

거란왕 야롤아보기가 수십만 병력을 집중하여 발해의 도읍 상경룡천부의 불안성을 끝내 타고왔었다는것이였다.

웅진성싸움에만 음해있던 왕건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였다.

거란이 그 다음목표를 어디다 두겠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친것이였다.

물론 그것은 넓으나넓은 중원대륙일것이였다.

왕건은 거란왕 야롤아보기가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원래 거란족은 전통적인 유목종족이였다.

발해를 건국할 때 고구려의 후손인 대조영의 뒤를 따라 당나라에 반기를 든 종족들중에는 말갈족들과 함께 거란족도 있었다. 말갈족들은 발해국이 선 이후 발해의 령토안에서 씨족별로 제각기 울타리를 치고 뿔뿔이 갈라져 살았으나 거란족은 발해의 북쪽땅을 차지하고 독자적인 나라를 세웠다.

초기에는 거란도 8개 부족으로 갈라져가지고 3년에 한번씩 대족장을 뽑는 방법으로 통치를 유지해왔었다. 그렇게 200여년을 지내오는 과정에 일개 부족장에 불과하던 야롤아보기가 주변의 다른 종족들을 제압하며 점차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는 저들의 대족장을 살해하고 8개 부족들의 우두머리들을 규합한 뒤 《대료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였다.

그는 당나라에 반기를 들었던 조상들의 본을 따서 대륙정복의 야

욕에 꿈틀거리는 마음을 안고 증원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러나 거기로 가는 길은 발해에 의해 막혀있었다. 증원으로 통하는 룡동별이 발해의 령역이었던것이다.

야를아보기의 심복들은 발해를 먼저 치고 증원정복에 나갈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발해의 군사력을 알고있었기에 발해에 동맹을 제의하면서 함께 증원으로 나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룡동을 잠시 열어줄것을 요구했다.

발해가 이를 수락할리 만무였다. 함께 증원을 치는것도 무리일뿐더러 길을 열어주는것도 아니 될 일로서 만약 거란의 증원공략이 실패하는 경우 그 책임을 그들과 져야 하는것은 물론 그 배상으로 증원에 룡동땅을 떼울수도 있었던것이다.

거란의 증원공략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같을것이였다.

증원을 차지한 거란이 룡동을 내어줄리는 만무한것이고 강해진 거란이 발해를 우습게 여겨 타고왔은 그대로 입을 씻고 나왔거나 오히려 발해마저 삼키려들것은 뻔한 리치였던것이다.

거란을 비대하게 만들어주는것자체부터가 발해가 죽는 길이였다.

문제는 거란의 요구를 들어주어 룡동에 길을 열어주는것부터가 승냥이 입에 고기덩이를 넣어주는 격이 될것이라는 이것이였다.

발해는 애초에 오랑캐족과 동맹하는것자체가 해동성국의 명성을 더럽히는것으로 된다면 싹 잘라 거절해버렸다.

료국(거란)태조 야를아보기는 분개하였다.

(그렇다면 증원을 먹지 못해도 좋으니 발해부터 꺼꾸러뜨릴테다. 이게 나의 가장 큰 소원성취로 될것이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발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발해는 전력을 다하였지만 끝내는 무너지고말았다.

발해는 이후에도 반거란항전을 계속하였으며 곳곳에서 후발해국이 계속해서 일어섰다.

력사에 기록을 남기고있는것만 하여도 10여개를 넘고있다. 발해의

재건과 부흥운동은 이후로 무려 150여년동안이나 이어져갔다.

그 과정에 많은 발해인들이 고려로 넘어왔으니 그 수는 력사에 기록되어있는것만도 15만을 헤아리고있다.

발해왕자 대광현이 근 3만의 유민을 거느리고 왕건을 찾아오는 력사의 대이동도 이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발해정복에 열을 올리던 야를아보기는 발해수도 상경룡천부 홀안성을 차지한 다음 병을 만나 그곳에서 급사하였다.

사람들은 발해인들의 저주를 모아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린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거란은 야를아보기의 아들인 야를배가 왕위를 잇고 중원으로 내달았다. 그곳에서 격전으로 세월을 주름잡다가 점차 쇠진하여 그 이후엔 력사에 자취마저 남기지 못하고말았다.

그러나 거란이 황폐화시킨 룡동땅과 송화강류역, 흑수류역에서는 녀진인들이 서서히 세력을 집결해갔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들은 새롭게 일떠서 마침내 금나라를 세우는데까지 이르렀다.

금나라의 태조는 아골타라는 사람으로서 생녀진출신인 그는 지금의 길림에서 태어났다. 그가 바로 녀진의 72개 부족을 통합하고 룡동으로 진격하여 송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였다.

그는 생존시에 녀진은 말갈의 후예이고 말갈인은 고구려국의 속인이었던만큼 녀진인들은 마땅히 고려를 조상의 나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허나 이러한 사실은 아직은 썩 후날의 이야기였다.

왕건은 결연히 송악으로 올라왔다. 발해의 조락과 함께 번져질 북방의 정황에 대처해야 하였던것이다.

웅진성을 방위하는 싸움은 홍유와 박술희에게 맡기였다. 능산과 배현경이에게는 신라의 고창성에 내려가 그아래 후백제군이 차지하고 있는 조물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견훤이 이곳저곳 쫓시고 올라오지 못하게 발목을 비끄러매놓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송악에 올라온 왕건은 하루밤 머물렀다가 다음날로 금필과 함께 평양성으로 떠나갔다. …

왕건과 함께 평양성에 도착한 다음날 금필은 서북방의 군력을 보강할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식렴으로부터 귀에 익은 이름을 하나 듣게 되었다. 지방호족들을 발동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식렴이 불만스레 내뱉은 이름이었다. 문화현의 두령인 류달이란자가 큰 거부인데 노는것은 몹시 쪼물쭈하다는것이였다.

류달… 류달이라면 혹시 나와 동갑내기인 그 류달이 아닐까?

소시적에 치악산 경당패아이들을 휘동해가지고 가서 무술시합을 하면서 사귀었던 구월산 무사골의 박치기두목에 그 류달일수 있었다.

류달은 그날 금필과 활쏘기, 말타기에 이어 씨름과 수박치기로도 승부가 나지 않자 마감엔 자기 장끼인 박치기를 들이대여 금필을 넘어뜨렸었다. 그날 류달이 불의에 골받이를 하는통에 금필은 큰대자로 넘어지고말았다.

저녁에 초불앞에서 문장겨루기도 하였는데 거기서도 류달은 금필을 룡가했다.

그 당시 류달의 아버지는 구월산아근에서 첫손가락안에 드는 호족이고 장사치였다. 금필은 류달이가 크면 재목이 될수 있다고 보고 떠나올 때 은근히 속을 비쳤었다.

《우리 친하자구. 보아하니 류달형은 크게 될 인물ियो. 나를 동생으로 삼지 않으시려우?》

금필의 말에 류달은 피씩 웃었다.

《지금은 제몹이나 건사합세.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짐승도 절기를 따라 거동을 하고 사람은 먹은 나이를 보고 말고뼉을 쥐운다더군.》

어린 나이에 무슨 앞일을 론하랴, 경망에 가깝다는 원잔이였다. 하면서도 그는 금필과 하루밤 자고 헤어지는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런 류달이라 지금쯤이면 고을 하나 쥐고 노는건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리라. 그런데 그가 쪼물쭈하다는 소릴 듣다니…

《류달이 이놈은 내가 두번씩이나 사람을 파해 추궁했는데도 매

번 봐야 갓난애 꼬투리만큼씩밖에는 보내오지 않는 줌상이오이다.》

《그곳에서 무엇을 주로 가져오나?》

왕건이 묻자 식렴은 끝살을 찌프렸다.

《제일 요긴한 철기오이다.》

《그렇다면 엄하게 다스려야지. 내가 이미전에 내린 어지가 있지 않는가. 병쟁기납입에 불손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

《그래서 어제 내가 직접 사람을 몇명 끌라서 내려보냈소이다. 버릇을 좀 떼줘야겠소이다.》

《그것 잘했네.》

왕건은 패씹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있었다.

금필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 류달이가 틀림없다면 그가 곤장이나 맞고있게 해서 안된다. 지금이 어느뎨가. 그도 고구려후손일진대... 제 본분을 하게 해야 한다.)

《제가 한번 걸음을 해보겠소이다.》

《동생이?! 어제그제 전장에서 돌아선 몸으로 일없겠소?》

왕건은 걱정은 하면서도 그래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내가 아는 류달이라면 그렇게 두어선 안될 사람이오이다. 그럼 전...》

금필은 옹근 하루를 달려 구월산으로 찾아갔다.

금필이 문화고을에 들어서니 류달은 이미 관청뜨락에 부복한채 문초를 받고있었다.

《서경의 분부자 조정의 분부이온데 이사정저사정, 고을사정만 내세우면서 임금의 어명을 흥정하려드는 그 죄 죽어 마땅하나 식렴대 광계선 벌을 낮추시어 매 스무대를 내리었으니 류달은 어서 벌을 받으라.》

서경에서 내려온 관리의 목소리는 자못 엄엄했다.

《정치란 백성들의 호구지책을 잘 감당하는것이여야 하거늘 백성들을 농사를 짓게 하지 않고 부역에만 전적으로 나서라 하는건 잘못된 줄 아오. 농사를 잘 지으라는것도 어명으로 알고있소.》

류달은 형틀에 엮드리기를 완강히 거부하고있었다.

금필이 자세히 살펴보니 소시적의 그 류달이 분명하였다.

《류달은 두말말고 벌을 받으라! 집장사령! 어서 형을 집행하지 못할가!》

서경관리는 데리고 온 형리며 라졸들에게 거품을 물고 고향을 쳤다. 그러자 고을장정 서넛이 형틀을 타고왔으며 맞받아 소리쳤다.

《매는 우리가 맞겠소. 류달어른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못하오!》
류달의 가병들이었다.

《똥이? …》

서경관리며 집장사령이며 곤장뭉음을 들고 다가들던 라졸들의 두 눈이 썩해졌다.

《관가의 령을 거역하는건가?》

서경관리는 서슬이 덩덩한 눈으로 류달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쪽도 숙어들 자세가 아니었다. 서로 노려보며 불씨들을 튕기는품들이 일이 나도 크게 날것 같았다.

《가만!》

금필은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형리는 형을 잠시 중지함이 어떤가?》

《아니? 유대광나리께서 어떻게? … 우린 지금…》

서경관리는 난색이 돼서 손을 내저었다.

《알고있소. 내 생각에는… 고을의 사정이 어떤것인지 좀 알아보고 형을 집행해도 늦지는 않으리라 보오.》

금필은 형집행을 중지시킨 뒤 류달을 방으로 들게 했다.

《류달형! … 나를 알아보시겠소?》

《아니, 이게 누군가! 동갑이… 금필형이 아닌가!》

둘은 얼싸안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지만 강산이 세번 변하였을망정 흥안시절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리가 없는 이들이었다.

《류달형이 계시면서 조정을 노엽히다니… 리해되지 않소이다.》

금필이 나무라자 류달은 얼굴을 붉혔다.

《평양성의 식렘어른이 우리 고을 등골을 너무 굽고있었기에 내 엇

드레를 하고 나선거요. 쇠부리터는 늘이라면서 사내꼬투리들은 계속 뽑아가니 일손을 당할수가 있소?》

《나라사정을 생각해야지요. 우리 고려는 지금 전쟁을 하고있지 않소. 후백제를 굴복시키고 통일을 하려는 전쟁을 말ियो.》

《그걸 모르는바 아니나… 수하의 백성들이 허리펼새없이 부대끼는것이 고까와서… 내 생각이 짧았소. 나도 고려사람ियो. 내 마음을 고쳐먹고 분발하리다. 가서 식렴어른에게 이 류달을 너무 하대만 말란다고 하시오.》

《식렴대광은 좋은 사람이요. 나를 믿듯이 그를 믿어도 되요. 부탁하는데 그의 한쪽팔이 되어주시오.》

《잘 알았소, 금필형!》

류달은 무엇인가 생각을 더듬더니 시 한수를 읊조렸다.

어릴적 죽마고우 뜻밖에 만나보니
그간의 몸사림이 부끄럽기 그지없네
나라생각 앓는자 짐승이라 하였으니
늦게나마 떨쳐나서 내 나라를 받들리라

《고맙소, 류달형!》

《금필형! 난 사실 권력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우리 부친도 생존해계실 때 권력은 절대로 따를게 아니라 하셨지. 궁예시절에도 그랬거니와 지금의 고려조정에도 우리 부친께선 제 먼저 무릎걸음하고 찾아가진 않으셨으니까. 백성을 책임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게 우리 부친 지론이었지. … 립종의 시각에 나에게 한 부탁은 문화고을백성들만이라도 잘 먹여살리라는거였네. 그거면 내 인생은 성공한것이라고 하였지.》

《허나 나라일이 잘되어야 고을일도 집안일도 다 잘되는 법이 아니겠소? 이런 옛글이 떠오르는구려. 백성은 천만 창날ियो. 나라는 한

벌 갑옷이라 백성이 창날되지 아니하면 어찌 나라가 지켜지리오.》

《잘 알겠소. 내 꼭 그리하리다. 한가지 부탁할건 우리 고을 청장년들을 군역으로 뽑아가는것만은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거요. 쇠부리터 일은 남정들의 손이 가야만 하는 일이 아닌가. 농사하고는 또 다르네.》

《폐하께 상주해서 그리하도록 하겠네. 겹해서 부탁하는데 이곳의 일판을 지금의 열배쯤 늘여주게. 지금도 그리하거니와 앞으로도 철기는 끝없이 요구될테니까.》

《알겠소, 금필형!》

《그럼 믿고 가겠소.》

금필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결과를 들은 식렴은 입이 찌지게 좋아했고 왕건도 기분이 좋아 연신 수업을 내리쉴었다.

금필은 왕건과 함께 한달나마 청천강이북의 고을들을 돌면서 새로 쌓았거나 쌓고있는 성들을 료해하고 봉화대며 역참들까지 일일이 점검했다. …

어느덧 한해가 저물고있었다.

이해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던 왕건은 4촌동생 왕신의 죽음을 상기하자 다시금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해가 저물기 전에 복수전을 하리라 마음먹은것이였다.

산과 들이 빙설천지로 화한 이무렵에 왕건은 출병을 명령하였다.

목표는 후백제의 운주성이였다.

왕건은 원래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할무렵 먼저 홍유를 시켜 운주성을 까게 하였다. 그런데 홍유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왕건은 홍유를 내놓고 질책했다.

《나이는 속이지 못하겠구려. 그렇다 해도 고려의 일등무장이신 홍대광께서 그냥 돌아서다니 될말이요?》

《대광》이란 호칭은 고려 초기 왕건이 정한 벼슬등급의 하나로서

정2품에 해당된다. 《대광》우에 《중대광》(중1품), 《삼중대광》(정1품)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문서표기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대광》으로 불리웠다. 왕건이 품계가 간단치 않은 홍유인데도 구실을 못한다고 내놓고 야유하고있는것이였다.

홍유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것까지 거들며 비꼬아 나무라는것이 그지없이 불쾌했지만 패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싶어 마음껏 분풀이를 해주십사 하고 그저 옆드려 욕만 먹고있을따름이였다.

그런데 왕건의 다음말이 홍유의 자제력을 잃게 했다.

《금필이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건데… 평양성에 가있는 사람을 데려올수도 없고…》

금필이라면 성사할 일을 홍유 자기에게 맡긴탓에 그르쳤다는 소리였다.

열번을 잘하다가 한번을 그르친것을 가지고 이다지도 속아픈 소리를 할수 있는가, 폐하께서 이 홍유를 이렇게까지 박대하시다니…

홍유는 왕건의 심기가 어느 정도 곤두서있는지는 가늠을 못하고 그만에 천성인 울퉁뻐를 살리고말았다.

《폐하, 소인 물리가도 되겠소이까?》

실은 실컷 욕을 먹고나서 다시금 출정을 간청해서 만회를 하리라 작정하고 들어선것이 졸지에 뒤집혀지고말았다.

《별도 청하지 않고 그렇게 물리가겠다고? 그지없이 방자하다, 홍유!》

왕건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어서 벌을 주시오이다.》

《씩 사라져라, 보기도 싫다!》

《? … 폐하! …》

《나가라지 않느냐, 썩 나가!》

왕건은 자기보다 나이가 썩 우인 홍유에게는 대체로 존대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코흘리개취급을 하고있었다.

왕건의 노성에 홍유는 꿈틀 놀라 쫓기듯 대전밖으로 나와버렸다.

하지만 임금의 버림을 받은 홍유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대전뜨락밀에서 허둥거리며 행여나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하여 오락가락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야 집으로 돌아온 홍유는 이마를 동이고 자리에 눕고말았다.

(씩 나가라구? 이제 이 홍유 같은건 필요없단 말이지!)

신음소리를 내던 홍유는 (금필이라면 해낼수 있다구? 금필이면 단가!) 하고 속으로 대답질을 해보는 속에 금필에 대한 시기심이 저도 모르게 솟구쳐올랐다.

금필의 공적이 아무리 산같이 날가리를 올렸다 해도 홍유 자기가 그만 못하단 말인가. 금필이 궁예시절부터 싸움때마다 명성을 떨쳐왔지만 그건 다 왕건의 그늘아래서 나누어가진것이다.

말은 바른대로 궁예를 뒤엎는 거사때에도 금필이 그가 우리 마군장들을 보고 이래라저래라 훈수는 들었지만 실은 그때 그의 장단이 아니라도 우리 할바는 알아서 할수 있었다. 우리 마군장들이 능란하게 맞춰주었으니 말이지 제까짓 일개 부장이 혼자서야 무슨 맥을 추었을것이나.

남보다 승벽이 센 홍유는 금필에 대해서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홍유는 금필의 출중함을 인정은 하였지만 나이로 봐도 손아래사람이고 시작부터 제가 직접 키운 군사를 거느리고있지 못한것을 꼬집어 늘 금필을 내려다보고있었다.

홍유도 처음엔 금필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있었다. 금필이가 홍유 자기처럼 고구려재건의 뜻은 같았기에 당초엔 바늘틈만 한 간격도 없었던 사이였다. 아지태가 살아있을 때 궁예보고 홍유는 신라출신이니 경계하라는 간언을 한 사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선가 홍유의 귀에 들어온적이 있었다. 그때 홍유는 아지태의 목을 베겠다며 길길이 뛰었는데 마침 금필이 나서서 홍유어른의 고향인 의성은 지금은 신라 땅이지만 이전엔 고구려땅이었다고, 의성보다 훨씬 남쪽아래인 영천고

을까지도 다 고구려땅이었다고, 그건 내가 알고 공예자신도 다 아는 일이니 한쪽귀로 흘려보내라고 위로해서야 간신히 분을 삭이였었다.

그때부터 홍유는 금필과 자별한 사이가 되었다.

홍유가 금필과 버그러진것은 고려건국 초기 북방개척임무를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논하는 어전회의때부터였다. 북방개정군을 누구에게 책임지우겠는가 하는 논의마당에서 책임자로 처음엔 홍유가 거론되었는데 두세마디안팎에 금필에게로 확정이 되고말았다. 대신관료 거의 모두가 금필을 천거하였고 왕건도 금필에게 찬성했다. 홍유는 그때 자존심이 몹시 상하였었다. 제가 금필만큼은 재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난 뒤라 홍유는 심사가 뒤틀려 애꿎은 금필이만 원망하면서 그때부터 금필에게 고까운 생각을 품고있었다.

이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로련하고 속통도 좁지 않은 홍유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였다. 하건만 박달나무에도 좀 쓸 자리는 있다고 손꼽히는 로장이고 경우가 대쪽같다는 홍유에게도 시기심이 자리 잡힐 틈사리는 있는가보았다. 그는 금필이 북방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돌아와 왕건의 치하를 받을 때에도 박수는 치고있었으나 입은 삐죽하니 내밀고있었다. 이런 홍유인지라 왕건이 금필을 빗대고 자기의 무능을 질책하자 그만 임금앞이라는것도 가리지 않고 성격을 살리고 만것이였다. 한번 뒤틀린 감정은 쉽게 꺾이는것이 아니여서 이후에도 홍유는 금필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흠을 잡으려들어 제 인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홍유를 밀어버리고 술선 싸움에 나선 왕건의 운주성공격은 시작부터 애를 먹이였다. 후백제가 이를 미리 내람하고 력량을 보강한때 문이였다. 열흘이 넘도록 성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성은 깨지지 않았다.

...

금필은 왕건이 가을에 접어들어 송악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평양성에 그냥 머물러있으면서 귀속해오는 발해유민들을 접수하는 일을 비롯해서 서북방을 보강하는 일에 전념했다.

식량은 이들에게 거처지를 정해주고 호구등록을 하는 등 생계일면만 맡아하고 금필은 주로 군역일을 맡아했다.

부녀자와 아이들은 많지 않았고 대다수가 발해군사들이었거나 군속으로 징발되었던 남정들이었으므로 금필은 이들을 모두 군사로 돌렸다. 이들은 고려군사가 되는것을 극구 찬성해나섰다.

평양 북쪽 서북방일대는 발해유민들의 정착으로 더욱 보강되고있었다.

금필은 서북방정세가 일단 안정되자 송악으로 돌아섰다.

왕건이 다시금 후백제공략에 출정하였고 운주성이 깨지지 않아 고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왔기때문이었다.

(이해도 다 저물어가는 때에 그러다 신변에 무리가 가면 어찌 하랴. …)

금필은 송악에서 지체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그길로 운주성으로 달렸다.

금필은 운주성 가까운 눈덮인 들판에서 개미떼처럼 널려져 땅을 두지는 군사무리와 맞다들었다.

박술희가 성에불린 턱수염을 요란스레 휘저으며 군사들을 다물아치고있었다.

《금필형님!》

금필을 알아본 술희가 제잡담 내달려왔다. 그는 금필을 말우에서 건듯 안아내리고는 길우에 엮어놓고 덮쳐누르고 같이 뒹굴면서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그런데… 싸움은 하지 않고 들판에 널려서 무엇을 하느냐?》

금필이 의아해하자 술희는 너털웃음을 쳤다.

《먹을것을 캐고있소이다.》

《먹을것을? … 군량이 떨어졌느냐?》

《그러하오이다.》

《하오면 송악에 알리든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폐하께서 군량은 저 운주성에 있는것으로 충당해야 한다니며 송

악엔 절대로 기별을 말라 하셨소이다.》

《운주성이라면 후백제군사의것을 빼앗으라는 뜻이 아니냐?》

《그렇소이다. 운주성을 타고왔기 전에는 돌아갈 생각을 말라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강심을 먹으셨구나.)

금필은 긴장해졌다.

왕건의 신경이 날카로와지고있었다. 그가 복수심 하나에만 치우치면서 대사를 그르칠까 걱정되었다.

금필은 왕건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 온화한 모습일 때에도 한가닥 노기만은 감춰지지 않는 형상이었다. 그 노기는 눈초리에 비껴있었다. 그것이 여느때에는 위엄을 더해주는데 그쳐있지만 일단 분노하면 눈초리가 들리면서 노기가 서리발을 쳤다.

금필은 왕건의 그 쳐들리는 눈초리에서 분노의 감정도, 역제의 감정도 함께 호흡하는데 버릇되어있었다.

식량마저 열흘분만 가지고 떠나왔다니 왕건이 얼마만큼 독을 먹고 나섰는지 가히 알만 했다. 죽어나사나 운주성을 까고야 돌아설 잡도리였다.

《형님! 술방구리 하나 차고있는것 있으면 내놓소이다.》

술희가 순대 같은것을 손에 든채 금필에게 손을 내밀었다.

《폐하께 올리기도 전에 너부터 줄 술은 없다.》

얼핏 대답하는 속에서도 금필은 술희의 손에 들린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손에 든게 뭐냐?》

금필의 물음에 술희가 히죽 웃었다.

《형님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시다니요. 소시적 떠돌이때 이런걸 한두번만 자셨소?》

《뭐?! 그럼... 뱀이란 말이나?》

금필은 눈이 커졌다.

《그러하오이다. 자, 어서 술을 내놓소.》

술희는 정말로 산 뱀을 들고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방 빙설천지인 엄동설한에 구불거리는 산 뱀을 보면 기절초풍할것이었다. 허나 금필은 알고있었다. 남쪽지대에서는 뱀들이 겨울이면 개울가나 밭최푹 그리고 길옆 돌각담밑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눈이 내린 뒤 가만히 각담결면을 살피느라면 숨같은 눈우에 송곳으로 찢러놓은듯싶은 작은 구멍이 나있는데 그 구멍으로는 실오리같은 김이 몰몰 솟아오르는것을 볼수 있다. 뱀의 입김이 날아오르는것이다. 그걸 보고 밑을 파헤치면 영낙없이 또아리를 틀고자는 뱀을 찾게 되는것이다. 오래전에 먹을것이 정 없을 때면 술희가 이렇게 뒤져주는 뱀을 금필은 적잖게 먹어보았었다. 물론 불에 구운것이었다.

식량이 다 떨어졌으나 아랑곳않고 성을 공격하게 하니 술희가 지금 여가시간에 군사들에게 림시변통으로 코밀전사를 시키고있는것이었다.

금필이 휘둘러보니 군사들이 술희가 시키는대로 각담을 파헤치고 돌밭을 두지며 뱀잡이를 하고있었다. 개울가와 논뚝기들에서는 미꾸라지잡이도 하고있었다.

해반이쪽 눈두렁밑을 한뼘만 캐서 뒤엎으면 손가락보다 더 굵고 살진 미꾸라지들이 뒤번져나오군 하였다. 뱀잡이보다 미꾸라지잡이가 더 실적이 있었다.

군사들은 지친 속에서도 재미가 나서 웃고 떠들어댔다.

《자, 이런... 빨리 속을 덥힐걸 내놓으란데요.》

술희가 등이 달아 독촉했다.

그는 어느새 뱀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흰 속살만 남은 뱀허리를 감아쥔채 안달복달을 떨고있었다.

《이 두꺼비사촌아, 너에겐 약이 없구나!》

금필은 견디지 못하는척 술방구리를 혈어내렸다.

술방구리를 받아든 술희는 뱀의 대가리를 이발로 물어뜯어버리고는 그 뒤부분부터 입에 넣고 와작와작 씹어들어갔다.

마지막 꼬리꼭지까지 깨끗이 씹어넘기고서야 술희는 술방구리에 입을 댔다.

《형님, 폐하께 올릴건 따로 있겠지요?》

그 경황중에도 술희는 왕건의 걱정을 하였다.

《걱정말아, 네가 여기 있는걸 알면서 아무렴 한방구리로 굶뎠려 했겠냐?》

《우리 형님 정말 좋은분인데!》

술희는 눈깜짝할 사이에 뱀 한마리, 술 한방구리를 없애버렸다.

《에익! 살았다.》

그제야 배를 문지르며 술희가 독촉했다.

《형님, 어서 가십시다. 빨리 가서 폐하를 도와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저 운주성을 까버립시다.》

《그러세!》

금필은 왕건의 군막으로 말머리를 돌리었다. …

운주성공략은 어렵게 실현되었다.

금필이 나타나자 왕건은 일체 개입하지 않고 옆에 틀고앉아 보기만 하였다.

금필은 왕건의 새 모사인 최지몽과 능산, 술희와 의논을 거듭한 끝에 적을 성밖으로 끌어내는 수를 써서야 겨우 성을 함락시켰다. 철수하는 시늉을 하여 후백제군을 끌어낸것이였다.

왕건은 그제야 직성이 풀려 돌아가자고 했다.

평평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왔다가 꽃이 피는 봄철에 귀로에 오른 금필의 얼굴에 피곤이 실려있었다.

전해에 두만강가에서 설을 쇠고 년초에 송악으로 내려온 즉시 소백산너머 조물성전투를 잇고 다시금 청천강가에 올라가있다가 또다시 한수중류계선과 금강중류계선까지 내려오기를 거듭하였으니 한해에 두번이나 남정북진을 한셈이였다.

허나 그는 피곤을 풀 사이가 없었다.

후백제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던것이다.